

13차 Conference on Retroviruses and Opportunistic Infections 보고

글 | 최준용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1.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전략과 관련된 연구

1) 치료 시작 시점: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이하, HAART)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무증상 환자에서 비교적 초기에 시작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현재 미국 DHHS 치료지침에 의하면 무증상 환자에서 CD4 T세포수가 200~350개/μL인 경우 치료의 시작을 권유하고 있는데, 올해 CROI에서는 이보다 더 조기의 치료 시작을 권고하는 대규모 코호트 (ART Cohort Collabora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sponsored HIV Outpatient Study (HOPS))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CD4 T세포수가 350개/μL 이상으로 높은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에이즈의 진행, 약물 독성 빈도 등에 관한 이점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는데, HAART 시작 시점이 재정립되어야 하겠다.

2) 치료중단요법: 치료중단요법 (treatment interruption)은 HAART를 어떤 기준에 따라 간헐적으로 중단하는

치료방법으로 수년 전부터 대규모 임상연구가 진행 중이었다. 치료중단요법에 관한 대규모 임상연구들 중에서 일부가 그 단점으로 인해 조기 종결되었다. 5472명의 환자를 등록한 SMART 연구와 806명의 환자를 등록한 Trivacan 연구에서 CD4 T 세포수에 따라 HAART를 간헐적으로 중단했던 군에서 임상적 악화가 유의하게 높았다.

3) 항레트로바이러스제에 관한 비교 임상: 아프리카 환자들을 대상으로 abacavir+lamivudine+ zidovudine 과 nevirapine+lamivudine+zidovudine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비교한 NORA 연구에서 abacavir 군이 약 부작용이나 결핵약과의 상호작용 빈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boosted atazanavir에 대한 임상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되었다.

2.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와 관련된 문제들에 관한 연구

1) 심혈관계 부작용: 환자 94,469명을 추적한 DAD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HAART 시행에 의해 매년 16%씩 심혈관

계 진화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특히 단핵분해효소 억제제의 사용이 삼혈관계 부작용의 빈도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2) Tenofovir의 사용과 신기능 이상: 11,000명 이상의 환자를 등록한 CDC 코호트 연구에 의하면 tenofovir의 사용이 12~18개월 동안 GFR(신기능의 단위)을 6~10%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tenofovir의 사용 시 신기능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신약

Integrase inhibitor, maturation inhibitor, entry inhibitor, 새로운 protease inhibitor, reverse transcriptase inhibitor 등의 신약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보고되었고, 항레트로바이러스제 신약 개발의 도관(pipeline)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

4. HIV 감염 완치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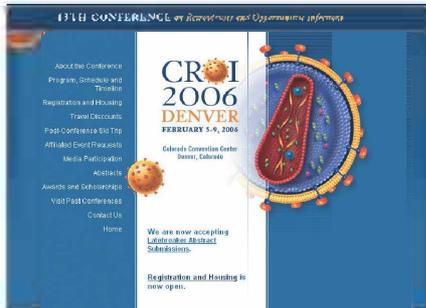
HIV 감염 완치의 길은 아직도 넓고 험하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저장소(reservoir)를 공격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논의되었다. 저장소들 중에서 위장관 점막 세포 바이러스 저장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바이러스 농도 이하의 매우 적은 바이러스혈증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법을 이용하여 완치의 길을 모색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저장소에 대한 학술회의 내용 중에서 미국 NIH에서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전태욱 박사의 강의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5. 맺음말

앞서 소개한 연구들 이외에도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번 학회에 발표되었는데 지면 관계로 더 많이 소개하지 못함이 아쉽다. HIV 감염은 여전히 인류 보건을 위한 중요과제로 남아있고,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HIV 감염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국내에도 HIV 감염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킨퍼런스 건물 외부



▲ www.retroconference.org/2006

필자는 2006년 2월 5일~8일에 개최된 13차 Conference on Retroviruses and Opportunistic Infections (제13회 레트로바이러스 및 기회감염회의, 이하 CROI)에 참석하였다. CROI는 해마다 에이스와 관련된 가장 우수한 최신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는 대표적인 에이즈 국제 학술대회로서 매년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 콜로라도주 록키산맥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고원 도시인 덴버에서 개최되었고, 850여 편의 연구초록(abstract)이 발표되었다. 본 지면에서 다루기에는 학술대회의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므로, 본 글에서는 몇 가지 연구들만 간략히 소개하겠다.



• 지난해 원고 중 'AIDS 치료의 원리와 신약 수가' # 1의 내용(10쪽)을 정정합니다. # 1의 내용 중 '비누를러우시드 무사'에 '비누 효소 억제제'가 비워있으나, 정보를 정확히 게재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